
모 두 발 언

2023. 4. 6.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김 소 영

※ 본 자료는 보도의 편의를 위해 제공되는 것으로, 실제 발언내용은 이와 다를 수 있습니다.

I. 인사 말씀

안녕하십니까,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김소영입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오늘 「은행장 간담회」에 참석해주신
김광수 은행연합회장님을 비롯한
은행장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번에 새로 선임되신
방성빈 부산은행장님과 예경탁 경남은행장님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는 최근 진행중인
은행권 전반에 대한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에 대해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인 은행장님들과
머리를 맞대고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마련하였습니다.

II. TF 출범 배경 및 주요 검토과제

그동안 은행권이 금융시스템의 중추로서
국민경제 발전과 금융시장 안정에 많은 기여를 해왔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위기 당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비롯한 국민과 기업에게
많은 자금을 공급하여 위기극복에 상당히 기여하였으며,

작년말 회사채시장 등 금융시장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
5대 은행지주에서 95조원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등
금융시장의 조기 안정화에도 크게 이바지하였습니다.

그러나, 최근 고물가·고금리로 은행의 고객인
국민과 기업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은행권이 손쉽게 예대마진으로 역대 최고의 수익을 거두고
미래에 대한 충분한 대비 없이
당장 고액의 성과급을 지급하는 모습은
결코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습니다.

은행산업이 경쟁이 부족한 과점적 구조에 머물러 있으면서,
국민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더 낮은 비용으로 제공하기 위해
서로 경쟁하고 혁신하기 보다는
독과점력을 활용하여 충분한 예대마진 확보라는
손쉬운 수익 수단에 안주했던 점에서
비롯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금융당국은 지난 2월부터
민간전문가, 쏠금융권협회, 민간연구기관과 함께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TF」를 구성하여
실질적인 경쟁체계 구축 등에 대해 고민해나가고 있습니다.

은행권의 경쟁촉진 및 구조개선 뿐 아니라,
금리체계, 성과보수체계 등 경영·영업 관행과 제도를 바꾸고,
미래 성장동력으로서의 비이자이익도 확대해나가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은행권내 실질적인 경쟁 체계를 확립하여
국민의 금리부담을 완화하고 새로운 기술과 혁신을 도입하는 등
고객인 국민들의 금융편익을 제고해나갈 것입니다.

또한, 위기에 흔들리지 않도록 은행권의 손실흡수능력을 제고하면서, 국민과 기업으로부터 얻은 수익을 다시 되돌려주기 위해 사회공헌활동을 활성화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할 계획입니다.

Ⅲ. 그간의 운영성과

지난 한 달여간 TF는 은행권 경쟁촉진·구조개선, 성과급 등 보수체계 개선, 손실흡수능력 제고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 은행권의 핵심업무인 예금·대출에 대한 「예금·대출 금리 경쟁촉진 2+1체계」를 확립하였습니다. 예금시장과 대출시장에 대해 각각 경쟁을 촉진할 뿐만 아니라, 예대금리차 공시를 확대하는 것입니다.

i) 국민들이 보다 많은 대출상품에 대해 손쉽게 낮은 금리로 이동할 수 있도록 대환대출인프라를 기존 신용대출(5월)에서 주택담보대출(12월)까지 확대하기로 하였으며,

ii) 6월부터 본격 가동될 맞춤형 예금을 비교·추천하는 온라인 예금 중개서비스에 대해서는 참여 사업자를 대폭 확대(기존 9개사 → 10개사 이상 추가)하고 정기 예·적금 외에도 수시입출금을 추가하고 모집한도도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하였습니다.

iii) 또한, 국민들의 금리정보 접근권을 제고하고 은행권내 자율적인 예대금리차 축소 노력을 촉구하기 위해 예대금리차 공시제도를 기존 신규취급액 기준 외에도 잔액기준, 전세자금예대금리차까지 확대해나갈 것입니다.

이러한 예금·대출금리 경쟁시스템 가동은 신규 진입 없이도 예금·대출 시장에서의 실질적 경쟁을 촉진하여 국민들의 금융편익을 증진시킬 것으로 기대됩니다.

② 가계부채와 코로나 당시 만기연장·상환유예 등에 따른 축적된 위험에 적극 대비하고
미래 경제성장을 위한 충분한 자금공급능력 확보 등을 위해 은행권의 자본확충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최근 美 SVB 사태 등으로
은행권의 손실흡수능력 제고가 한층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은행권의 자본확충 확대와 충당금 추가 적립을 위한 4대 핵심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i) 자본확충을 위해 ①경기대응완충자본을 부과하고
②스트레스완충자본 도입을 추진하는 한편,

ii) 위기에 대비하여 충분한 충당금을 적립하도록
③특별대손준비금적립요구권을 도입하고
④은행권의 예상손실 전망모형을
매년 점검·보완하는 체제도 구축하였습니다.

③ 향후 은행권내 경쟁촉진에 대해 결론을 내리는 과정에서 반드시 감안해야 할 핵심 고려·검토사항도 도출하였습니다.

i) 금융안정과 소비자 보호를 전제로
국민의 효용증진 관점에서 판단한다는 대원칙 아래,
구체적인 경쟁의 모습과 그 효과, 실효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ii) 신규 플레이어 진입에 대해서는
경합시장(Contestable Market) 관점에서
제도상·인가정책상 「진입이 가능한 시장」을 만들되,
「엄격한 심사」를 통해 충분한 능력이 검증된 경우에만
진입을 허용해야 할 필요가 있고,

iii) 비은행권의 지급결제 허용 여부는

금융업종에 따른 허용이 아닌

동일기능-동일리스크-동일규제 관점에서

지급결제리스크 및 소비자 편익 증진 효과를 검토해나갈 것입니다.

④ 성과보수체계 개선과 주주환원정책과 관련된

핵심 고려·검토사항에 대해서도 공감대를 형성하였습니다.

i) 성과지표에 있어서 단순히 시장상황 변동에 따른 수익 증가가 아닌
임직원의 혁신적 노력 여부를 평가하고

건전성·소비자보호 강화 등 공공성도 충분히 고려해야 하며,

ii) 은행의 중장기 발전을 촉진할 뿐 아니라

경기 진폭도 완화할 수 있게

단기적 성과 뿐 아니라 장기적 성과까지 평가하고

충분한 이연지급과 함께

주식·스톡옵션 등 지급수단도 다변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iii) 성과보수체계를 적극 공개·공시하여 투명성을 제고하고

국민과 시장으로부터 성과보수체계의 적정성을

평가받아야 할 것입니다.

iv) 주주환원정책 역시

단지 Shareholder(주주)가 아닌 **Stakeholder**(이해관계자)를 고려하여
은행의 이익이 어떻게 구성되고

그 이익이 어떤 방식으로 사용되고 분배되는지를

국민과 금융시장에게 충분히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향후 금융당국은 민간전문가 등과 함께

당초 계획에 따라 TF를 차질없이 운영하여

6월말까지 총 6개 과제*에 대해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며,

- * ① 은행권 경쟁 촉진 및 구조개선, ② 고정금리 비중 확대 등 금리체계 개선,
③ 성과급·퇴직금 등 보수체계 개선 및 주주환원정책 점검, ④ 손실흡수능력 제고,
⑤ 비이자이익 비중 확대, ⑥ 사회공헌 활성화

지금까지처럼 TF 및 실무작업반 운영과정에서
검토·논의가 완료된 방안을 즉시 발표하여
국민과 시장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신속히 이끌어내겠습니다.

IV. 마무리 말씀

은행은 국민과 기업에게 충분한 자금을 공급하는 경제혈맥이자
금융시장의 든든한 안전판으로서
금융산업의 가장 중요한 한 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간 은행권이
미래를 위한 준비가 미흡했던 측면이 있는 만큼,
금번 TF에서는 이를 개선하여
은행의 미래 청사진도 함께 그려나가고자 합니다.

은행들에서도 TF 운영에 적극 참여하고
향후 개선방안이 금융현장에서 실천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런 노력을 통해
다시금 국민과 기업으로부터 신뢰받고 사랑받는
은행산업으로 확고히 자리매김해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바쁘신 와중에도 오늘 간담회에 참여해주신
은행장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